

흑인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태도 결정 요인

이소영*

요약 이 연구는 미국 유권자들의 흑인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2008년 미국 대선 선거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기존연구가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징적 인종주의, 집단 간 갈등,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 그리고 교육 및 수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2008년에도 여전히 미국인들의 흑인과 인종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흑인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는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선호와 강하게 연관되어 나타나 인종 이슈가 점차 보편적 정치 균열 속에서 인식되고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종 편견을 완화하는 데 교육은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치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인종 이슈에 대해 모순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에서의 흑인 문제 해결은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교육기회의 확대 및 교육의 질 향상, 그리고 미디어의 책임 있는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는 다차원적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미국 인종이슈, 상징적 인종주의, 집단 갈등, 흑인 스테레오 타입

1. 서론

건국 이래 인종 문제는 미국 사회와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 요인이 되어 왔다. 1960년대 절정에 달했던 흑인 민권운동 이래 제도적으로는 인종 차별에 대한 철폐가 완료되었지만 인종 갈등은 여전히 미국사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흑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최하위층을 형성하고

* 대구대, 국제정치학, soyoung.sylee@gmail.com

있다. 불법이민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남미계 히스패닉 인종을 제외하면 교육수준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수입 정도에 있어서는 히스패닉보다 더 낮은 것이 미국 흑인들의 현실이다.

다수의 미국인들은 흑인에 대해 “게으르고 인지력이 낮으며 범죄에 많이 연루된다”는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스테레오 타입의 일차적 소스는 미디어이다. 미국의 미디어는 흑인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에서 스테레오 타입을 기반으로 인종문제를 코드화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많은 학자들은 미디어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종 관련 이슈에 대한 여론과 해결책이 흑인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종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왜 그리고 어떻게 미국인들이 흑인 또는 흑인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흑자는 흑인들에 대한 편견을 기반으로 하는 추상적 혐오감으로서 미국인들의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접근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들은 집단이익의 관점에서 집단이익을 공유하기 싫어하는 백인들이 흑백 인종의 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는 것으로 인종주의를 설명하기도 한다. 또는 미디어의 프레이밍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엘리트 담론에서 나타나는 인종주의적 단서가 백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불안하게 만들며 결국 흑백 평등 정책에 반대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유권자 간 이념적 차이나 정책이슈에 개인주의나 평등주의와 같은 미국사회의 중심적 가치가 얼마나 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에 따라 인종주의적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민의 흑인에 대한 태도와 인종주의적 접근은 한 두 개의 특징적 요인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다양한 원인 속에서 규명되어져 왔다. 자유주의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정치 이념으로 내재되어 있는 미국 민주주의에서 그러한 기본 가치와는 거리가 먼 인종주의의 발현은 미국 민주주의의 일종의 모순성을 나타내는 것인 만큼, 미국 인종주의는 일반적 특성을 가지기 보다는 이슈에 따라 매우 상이한 모습으로 다

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흑백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과 평등 정책에 대한 미국민(백인)들의 ‘태도’ 간의 괴리는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과연 어떠한 요소들 때문에 미국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면서도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민들의 인종주의적 태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된 2008년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미국민들의 인종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와 그 태도를 결정지은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미국사회의 핵심적 갈등 요소의 하나인 인종갈등 요인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 보기 위한 일차적 단계이며, 동시에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대한 접근법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미국 인종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2008년 미국민들의 인종주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해 보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추정을 선거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확인해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 연구 결과를 분석한 후, 마지막 결론에서 분석 결과가 나타내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인종주의와 인종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미국 유권자들의 인종주의적 태도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들은 주로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이 명시적으로 나타났던 데 반해, 오늘날의 인종주의는 훨씬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미국 유권자들이 인종적 평등이라는 추상적 원칙은 지지하면서 왜 흑백 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반대하는지에 주로 관심을 가

지고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민들의 인종주의적 태도와 행위는 상징적 인종주의(symbolic racism), 집단 간 갈등, 그리고 이념 및 가치에 대한 태도 차원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1) 상징적 인종주의

먼저, 상징적 인종주의적 시각에서는 미국민들이 흑인에 대한 편견에 기반하여 특정한 실체가 없이 추상적으로 흑인들에 대해 도덕적 분노감과 같은 감정을 느낌으로써 인종주의가 형성된다고 본다(Kinder and Sears, 1981; Sears, 1988; Sears and Kinder, 1985; Sears *et al.*, 2000). 흑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상징적 인종주의는 흑인들을 개인주의나 자기의존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 결과 현재의 흑백 차별적 정책이나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현상 상황을 바꾸는 데에 반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에서 인종주의는 흑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개인주의나 자기의존 등의 개신교적 윤리가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Kinder and Sears, 1981; Sears, 1988).

상징적 인종주의는 특히, 인종적 적대감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과 가치가 인종 관련 정책에 대한 백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주장(Sniderman *et al.*, 1991; Sniderman and Piazza, 1993)에 대치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시어스(Sears)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는 미국에서의 인종주의가 단순히 정치적 보수주의나 전통적 가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에 대한 반감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심각한 점은 이러한 상징적 인종주의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념적 보수성이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신봉이 흑인에 대한 적대감의 원인이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이러한 적대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 스나이더만 외(Sniderman *et al.*, 1991)의 주장과 대치된다.

미튼즈와 퍼티그루(Meetens and Pettigrew, 1997; Pettigrew and Meetens,

1995)는 시어스와 그의 동료들이 주장하는 상징적 인종주의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편견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과거의 인종주의가 흑인에 대한 분명한 반감으로 나타났다면, 1980년대 이후 나타나는 인종주의는 이성에 호소하여 정당화하는 더욱 절묘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종주의는 흑인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나 호의(affect)의 정도 등에 기반하여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킨더와 샌더스(Kinder and Sanders, 1996)는 상징적 인종주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면서 상징적 인종주의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인종적 분노(racial resentment)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들은 미국사회의 고유의 가치인 개인주의 정서가 백인들로 하여금 흑인에 대해 분개하게 만들고 결국 흑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생성하여 인종주의를 강하게 형성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징적 인종주의는 그러나 여러 차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스나이더먼과 테트락(Sniderman and Tetlock, 1986)에 의하면, 상징적 인종주의는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반감과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혼합하여 설명함으로써 실제로는 인종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조차 모두 인종주의자로 몰아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인종주의는 사라져 버리고 인종주의의 형태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도 비판을 가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킨더(1986)는 지난 40년간의 여론과 사회적 관습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여전히 인종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상징적 인종주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한다.

2) 집단 간 갈등

그러나 보보(Bobo, 1983)가 지적하듯이, 상징적 인종주의는 집단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축소하는 혐의의 개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보는 다차원적 원인을 가지는 인종주의적 태도를 편견-관용의 일차원적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흑백의 버스 동석 문

제를 분석한 보보의 연구에 의하면, 백인들의 버스 동석 반대는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보보 등(Bobo *et al.*, 1997)은 인종주의적 편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집단으로서의 인종에 대한 일종의 이념적 믿음(스테레오 타입)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보 등은 미국사회에서 보이는 이러한 인종주의를 자유방임적 인종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유방임적 인종주의는 인종에 대한 특정한 믿음이 집단 간 갈등에서 유래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가지고 온 불평등을 사회적 책임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심리 현상으로 간주하는 특징을 가진다.

비슷한 맥락에서, 잭맨(1994)은 정책에 대한 인종주의적 태도가 개인적인 편견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인종주의는 전체 사회 제도와 불평등의 결과물로서 지배적인 집단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이념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관점에서, 시다니어스 등(Sidanius *et al.*, 1992)도 집단 간 갈등은 집단의 위계적 지배를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수단으로 간주한다. 인종주의는 따라서 집단소속감, 인종중심주의, 그리고 집단우월주의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넬슨과 킨더(Nelson and Kinder, 1996)는 집단중심주의(group-centrism)가 인종평등 관련 정책들에 대한 미국민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그러한 정책 이슈들이 사회적 담론을 통해 인종주의적 요소로 프레임될 때 집단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넬슨과 킨더에 의하면, 특정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집단이 명확히 밝혀지고 그러한 혜택이 사회적 담론 과정에서 강조될 때 집단중심주의적 경향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차별보상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흑인에 대한 불공정성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백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나타날 때 차별보상정책에 대한 백인들의 반대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보다 최근 연구에서도, 브레이더 등(Brader *et al.*, 2008)은 엘리트 담론에서 나타나는 인종적 단서가 백인들의 집단적 불안감을 자극하고, 이 불안감

이 결국은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행태는 인종 차별이 나쁜 것이며, 이를 시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믿음과는 별개로 집단적 불안감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집단적 불안감은 실제 위협과는 상관없이 흑인의 비율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백인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Taylor, 2000).

보보(Bobo, 1988)는 이러한 집단적 불안감을 집단위협(group threat)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보에 의하면, 집단위협은 집단 간 갈등이 현실화되는 형태로서 집단의 이익이 박탈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보의 집단위협은 흑인에 대한 추상적 편견에 기인하는 상징적 인종주의와 일맥상통한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보보와 그 동료들(Bobo *et al.*, 2000)은 차별보상정책에 대한 혜택과 비용에 대한 믿음이 백인들의 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 순수히 합리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인종주의, 이념, 집단위협에 대한 인지 등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민의 인종주의적 태도가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다차원적인 요소들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3) 비인종적·정치적 요소

한편, 일련의 연구들은 미국사회의 인종주의가 사실상은 인종적 편견이나 집단적 갈등보다는 비인종적인 요소들인 개인의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에 기인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스나이더만 등(Sniderman *et al.*, 1996)에 따르면, 정책 이슈가 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도,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이슈는 인종문제와 관련이 없는 보다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종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종적 요소보다는 비인종적, 정치적 요소인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흑인들을 돕는 정책보다는 보다 보편적 차원에서 소수자를 돕는 정책으로 정당화할 때 백인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결국 그 정책에 대한 지지 및 반대는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스나이더만과 칼마인즈(1997)는 현대 미국의 인종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인종 그 자체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견해와 가치를 통하여 인종 정책에 대한 반대를 정당화함으로써 원칙과 정책 간의 모순, 즉, 인종평등이라는 원칙은 지지하면서 평등정책에는 반대하는 현실적 모순은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nideman *et al.*, 1993).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이념과 가치 등도 인종 이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클루겔과 스미스(Kluegel and Smith, 1983)의 연구에 의하면, 평등이 정의롭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별보상정책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보보와 클루겔(Bobo and Kluegel, 1993)은 빈곤이 사회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할수록 흑인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해야 하며, 흑인들을 돕는 데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경우는 인종평등 관련 정책에 대한 반대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교육과 정치적 지식

교육은 미국인들의 인종 및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 결과들은 교육 변수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초기의 연구들은 인종 정책과 관련한 평등주의적 원칙에 대한 동의 정도에 교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던 과거의 인종주의적 태도를 설명하는 데 교육수준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Jackman and Muha, 1984). 기존 연구들은 또한 인종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Bobo and Kluegel, 1993; Taylor, 1998). 특히, 스나이더만과 피아자(Sniderman and Piazza, 1993)에 의하면, 인종 관련 정책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념적 성향에,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인종적 편견에 기반하여 태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슈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 특히 차별보상정책 등 흑인에 대한 특혜 정책에 대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크게 반대한다는 결과는 아이러니한 결과이다(Tuch and Hughes, 1996; Schuman *et al.*, 1997). 몇몇 연구들은 인종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종주의는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Bobo, 2000; Sidanius *et al.*, 2000)

교육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지식 또한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알바레즈와 브레엄(Alvarez and Brehm, 1997)에 의하면, 미국민들이 인종 관련 정책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가지는 이유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지, 의도적으로 그 정책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정책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분명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컨버스(Converse, 1964)에 의하면, 정치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개별 이슈를 이념과 같은 추상적 개념과 연결시키는 개념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 선택을 할 수 있는 반면, 정치적 지식이 낮은 사람들은 이 개념화 작업에 실패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적 태도를 가지기가 어렵다. 특히, 정치적 지식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유도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종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정치적 지식보다는 집단에 대한 호불호, 애정 등과 같은 휴리스틱스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기도 하다(Sniderman *et al.*, 1991). 특히, 정치적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집단에 대한 호불호나 애정 등은

그들의 정책 선호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식된다(Lau and Redlawsk, 2001; Sniderman *et al.*, 1991).

요약컨대,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적 경향은 인종에 대한 편견과 전통적 가치가 결합함으로써 인종에 대한 애정 및 분노로 나타나는 상징적 인종주의, 집단 간 갈등이나 집단 중심주의로 나타나는 집단 갈등적 인종주의, 이념이나 가치 등 비인종적·정치적 요인, 그리고 교육정도나 정치적 지식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분석되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작용적이라기보다는 배타적 요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보보(1983)나 보보 등(2000)의 주장대로 인종주의적 태도는 사실상 다차원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등장하는 2008년 시점에 미국민의 인종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가 위에서 논의한 어떠한 요소를 통해 더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고, 더불어 어떠한 요소의 변화 또는 철폐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가를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3. 연구 방법

미국 유권자들의 인종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08년 미국 대선 조사 자료(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serie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이슈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이 조사 데이터에서 인종과 관련된 8가지 이슈 문항 중 하나의 문항은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 ① 흑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 1=정부가 흑인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7=흑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② 흑인 대통령에 대한 불편 정도: 1=전혀 불편하지 않음; 5=매우 불편함
- ③ 공정한 흑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1=정부가 흑인들을 위해

공정한 일자리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5=공정한 흑인 일자리 확보는 연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 ④ 다른 인종들처럼 흑인들도 특혜를 받기 보다는 스스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 정도: 1=매우 반대함; 5=매우 찬성함
- ⑤ 과거 노예 역사와 차별이 현재 흑인들로 하여금 하위계층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1=강하게 동의함; 5=전혀 동의하지 않음
- ⑥ 흑인들은 그 자격에 비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1=강하게 동의함; 5=전혀 동의하지 않음
- ⑦ 흑인들이 보다 열심히 노력하면, 백인만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1=전혀 동의하지 않음; 5=강하게 동의함
- ⑧ 차별보상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태도: 고용 시 흑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한 찬반 정도: 1=찬성; 5=반대

이들 여덟 가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로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논의한 상징적 인종주의, 집단 변수, 정치적 변수, 그리고 사회구조적 또는 정치적 지식 변수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상징적 인종주의 변수는 흑인을 게으르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로 묘사하는 스테레오 타입 변수를 활용한다. 이러한 스테레오 타입은 미국사회의 개인주의적, 자립적 가치가 흑인에 대한 편견으로 나타난 경우로서 상징적 인종주의에서 논의하는 인종적 편견을 잘 나타내는 변수이다. 이와 더불어, 상징적 인종주의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을 형성하고 있는 ‘흑인들은 지적이지 못하다’는 편견 변수도 분석에 포함시켜 앞의 변수와 비교한다. 흑인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을 강하게 가질수록 흑인에 대해 비우호적이며, 인종평등 관련 정책에도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집단에 대한 분노나 혐오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가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아서 집단 변수는 응답자들이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흑인에 대한 애정(affect) 정도를 표시하는 온도 지수(ther-

rometer score)로 측정한다. 흑인에 대한 온도지수가 높을 수록 흑인과 관련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세 번째, 이념 변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보-보수의 7점 척도 스펙트럼에 더하여 스나이더만 등(1991)이 제안하고 있는 이념적 애착정도(ideological affect)를 포함한다. 이념적 애착정도는 응답자 자신이 이념적으로 가깝게 여기는 이념 집단과 멀게 느끼는 이념 집단에 대한 온도 차를 측정하여 사용한다. 동시에 이러한 이념적 애착의 정도는 응답자의 이념적 위치와 특정 이슈에 대한 태도를 연결하는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응답자의 이념과 이념적 애착도의 상호작용 효과도 함께 관찰한다. 진보적 성향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애착도가 강할수록 흑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념 변수에 더하여 유사한 정치적 변수로서 정당선호도의 효과도 함께 측정한다. 미국 유권자의 정당선호는 이념적 스펙트럼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미국민들은 스스로를 정치적 보수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진보로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지만, 양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치 과정에서 정당은 대부분의 이슈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양 정당이 이념적으로 강하게 분리되어 양극화 현상을 유도하고 있는 최근에는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정당선호도가 유권자들의 흑인 이슈 관련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효과는 공화당 지지자일수록 흑인우호정책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당선호도는 강한 민주당 지지=1, 강한 공화당 지지=7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네 번째, 교육은 응답자의 최종 학위 단계를 통해 7점 척도로 측정한다. 정치적 지식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변수를 더하여 측정한다. 정치적 지식 관련 개방형 질문은 이에 대한 코딩이 완료된 데이터가 아직은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대신에, 인터뷰 담당자들이 주관적으로 측정한 응답자의 정치적 지식수준(5점 척도)과 각 정책 이슈들에 대해 오바마와 매케

인의 상대적 정책 위치를 응답자들이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측정한 값을 더 하여 지식 점수로 사용한다. 교육과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흑인이 처한 사회구조적 현실을 제대로 인지할 것이므로 흑인에 대해 우호적이고 인종평등정책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연령, 가정의 수입 정도, 성별 등이 통제변수로 포함된다. 인종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역할은 데이터 내에 적절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생략하기로 하였다.

위의 이슈들과 설명변수들을 바탕으로 회귀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질 수 있다.

이슈 i 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위치)

$$= \beta_0 + \beta_1(\text{스테레오 타입1: 게으름}) + \beta_2(\text{스테레오 타입2: 지적이 아님}) + \beta_3(\text{흑인에 대한 애정}) + \beta_4(\text{이념적 위치}) + \beta_5(\text{이념적 애착}) + \beta_6(\text{이념적 위치} * \text{이념적 애착}) + \beta_7(\text{정치적 지식}) + \beta_8(\text{교육}) + \beta_9(\text{연령}) + \beta_{10}(\text{수입}) + \beta_{11}(\text{남성}) + e$$

4. 분석 결과

1) 인종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와 태도 결정 요인들 간의 관계

회귀분석에 앞서, 각 인종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태도와, 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크기에 따라 유권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각 요인들의 개별적 영향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흑인에 대한 인식과 흑인 관련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이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2008년 미국 유권자들은 대체로 흑인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데 대한 거부감은 약한 편이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흑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의견과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들의 공정한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에는 약간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 이슈들(과거 역사가 흑인의 현재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 및 흑인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거나, 흑인들에게 다소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미국 유권자들은 흑인도 다른 인종들처럼 스스로 편견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흑인들도 노력하면 백인처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개입에 대해서도 대체로 반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취업 시 흑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차별보상정책에는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표 1에서 나타난 인종 관련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달리 나타난다. 표 2는 흑인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상징적 인종주의), 흑인에 대한 온도 지수(집단), 정치적 이념, 그리고 교육정도 등 주요 태도 결정 요인의 변화에 따라 인종 관련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상대로, 네 가지 요인 모두 유권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교

표 1. 인종 관련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평균값)

인종 관련 이슈	평균값	N
흑인을 위한 정부 역할(7점 척도)	4.510	1923
흑인 대통령에 대한 불편감	1.391	2286
공정한 흑인 일자리 위한 정부 역할	2.513	1129
흑인 스스로 편견 극복해야	3.786	2077
과거 역사가 흑인의 현재 어려운 삶에 영향을 미침	2.967	2088
흑인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음	3.248	2084
흑인들이 노력하면 백인처럼 살 수 있음	3.482	2079
차별보상정책	4.010	1916

(각 이슈에 대하여 흑인에 가장 우호적인 생각이 1, 가장 비우호적인 생각이 7 또는 5로 코딩됨)

육정도를 제외한 세 가지 요인들의 영향은 모두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흑인들에 대해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있을수록, 흑인에 대한 집단적 온도 지수가 낮을수록,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흑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특혜(차별 보상정책)를 더 반대하고, 흑인의 현재의 빈곤과 어려움이 과거 역사나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흑인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의견을 더 강하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데 대한 불편감도 조금 더 컸다.

반면, 교육의 효과는 흑인에 대한 인식과 이슈에 대한 태도에 복합적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흑인 대통령에 대한 불

표 2. 태도 결정 요인에 따른 이슈에 대한 태도(평균값)

인종 관련 이슈	스테레오 타입		흑인에 대한 온도 점수	
	긍정(열심)	부정(게으름)	높음	낮음
흑인을 위한 정부 역할(7점 척도)	4.201	5.193***	3.975	4.957***
흑인 대통령에 대한 불편감	1.291	1.634***	1.248	1.495***
공정한 흑인 일자리 위한 정부 역할	2.167	3.372***	1.862	3.100***
흑인 스스로 편견 극복해야	3.652	4.136***	3.669	3.885***
과거 역사가 흑인의 현재 어려운 삶에 영향을 미침	2.835	3.292***	2.713	3.155***
흑인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음	3.074	3.662***	2.920	3.486***
흑인들이 노력하면 백인처럼 살 수 있음	3.324	3.906***	3.328	3.614***
차별보상정책	3.830	4.435***	3.576	4.340***

(각 이슈에 대하여 흑인에 가장 우호적인 생각이 1, 가장 비우호적인 생각이 7 또는 5로 코딩됨)¹

*p < .05 **p < .01 ***p < .001(평균 비교 t-test)

각 요인을 중위수를 중심으로 두 개 집단으로 분할하였음.

1 따라서 각 요인의 오른쪽 칸의 숫자들이 왼쪽 칸의 숫자들보다 큰 숫자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즉, 흑인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보다, 흑인에 대한 온도 점수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보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보다 인종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흑인에 비우호적인 정책과 방향을 선호할 것이라 가정한다.

표 2. 태도 결정 요인에 따른 이슈에 대한 태도(계속)

인종 관련 이슈	정치적 이념		교육 정도	
	진보	보수	높음	낮음
흑인을 위한 정부 역할(7점 척도)	4.220	5.713***	4.597	4.404*
흑인 대통령에 대한 불편감	1.304	1.430**	1.267	1.529***
공정한 흑인 일자리 위한 정부 역할	2.377	2.964***	2.640	2.347*
흑인 스스로 편견 극복해야	3.592	4.007***	3.620	3.980***
과거 역사가 흑인의 현재 어려운 삶에 영향을 미침	2.807	3.274***	2.987	2.946
흑인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음	3.100	3.613***	3.308	3.186*
흑인들이 노력하면 백인처럼 살 수 있음	3.274	3.709***	3.261	3.735***
차별보상정책	3.948	4.460***	4.246	3.740***

*p <.05 **p <.01 ***p <.001(평균 비교 t-test)
 각 요인을 중위수를 중심으로 두 개 집단으로 분할하였음.

편감이 낮고, 흑인 스스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더 많이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흑인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흑인이 노력하면 백인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덜 동의하며, 무엇보다 흑인에 대한 차별보상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유권자들은 예상과 달리, 흑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공정한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서도 덜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예상 밖 결과가 교육 수준 그 자체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수입 정도와 같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교육 변수를 통해 나타난 것인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2) 인종 관련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3은 인종 이슈와 관련한 미국 유권자들의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예상대로, 상징적 인종주의, 집단 갈등(또는 애정), 이념, 교육 및 정

표 3. 인종 이슈 관련 유권자 태도에 대한 회귀 분석

변수	흑인을 위한 정부 역할(7점 척도)	흑인 대통령에 대한 불편감	공정한 흑인 일자리 위한 정부 역할	흑인 스스로 편견 극복해야
스테레오 타입 (게으름)	.184*** (.049)	.058** (.020)	.235*** (.061)	.112*** (.031)
스테레오 타입 (지적 능력 낮음)	-.027 (.053)	.035 (.022)	.008 (.066)	.000 (.034)
흑인에 대한 온도 지수	-.007* (.003)	-.005*** (.001)	-.011** (.004)	-.003 (.002)
정치적 이념	.123* (.060)	.053* (.025)	-.124 (.075)	.073 (.040)
이념적 애착 정도	-.013* (.007)	.007** (.003)	-.010 (.008)	-.007 (.005)
이념×이념적 애착 정도	.002 (.001)	-.002** (.001)	.002 (.002)	.001 (.001)
정당선호도	.210*** (.034)	.012 (.014)	.273*** (.043)	.078* (.022)
정치적 지식	.082* (.035)	-.069*** (.014)	.014 (.045)	-.048* (.022)
교육	-.095* (.043)	-.055** (.018)	-.023 (.056)	-.096* (.028)
연령	.005 (.004)	.004* (.002)	.002 (.005)	.010*** (.002)
수입	.019 (.011)	-.011* (.004)	.030 (.013)	-.012 (.007)
남성	.110 (.114)	-.001 (.049)	-.410** (.148)	-.160* (.075)
상수	2.595*** (.495)	1.842*** (.208)	1.695** (.629)	3.455*** (.322)
N	889	985	592	990
R ²	.219	.130	.229	.152

*p <.05 **p <.01 ***p <.001 ; 괄호 안은 표준오차

표 3. 인종 이슈 관련 유권자 태도에 대한 회귀 분석(계속)

변수	과거 역사가 흑인의 현재 어려운 삶에 영향을 미침	흑인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음	흑인들이 노력하면 백인처럼 살 수 있음	차별보상정책
스테레오 타입 (게으름)	.135*** (.035)	.118*** (.032)	.161*** (.032)	.084* (.031)
스테레오 타입 (지적 능력 낮음)	-.036 (.038)	.050 (.035)	.047 (.035)	.080 (.045)
흑인에 대한 온도 지수	-.004 (.002)	-.005* (.002)	-.002 (.002)	-.013*** (.003)
정치적 이념	-.037 (.044)	-.024 (.040)	.045 (.040)	.029 (.051)
이념적 애착 정도	-.013* (.005)	-.011* (.005)	-.005 (.005)	-.009 (.006)
이념×이념적 애착 정도	.002* (.001)	.002** (.001)	.002 (.001)	.001 (.001)
정당선호도	.132*** (.025)	.125*** (.023)	.079** (.023)	.150*** (.029)
정치적 지식	.004 (.025)	.018*** (.014)	-.117*** (.023)	.103*** (.029)
교육	-.081* (.032)	-.064* (.029)	-.119*** (.029)	.045 (.037)
연령	-.004 (.003)	.002 (.002)	.004 (.002)	.000 (.003)
수입	.017* (.008)	.022** (.007)	-.011 (.007)	.020* (.009)
남성	-.134 (.084)	-.076 (.076)	.128 (.077)	-.098 (.098)
상수	2.993*** (.359)	2.470*** (.326)	3.887*** (.330)	2.811*** (.416)
N	990	989	986	930
R ²	.123	.175	.173	.201

*p < .05 **p < .01 ***p < .001 ; 괄호 안은 표준오차

치적 지식이 이들 인종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먼저, 상징적 인종주의 변수인 ‘흑인이 게으르다’는 스테레오타입은 전체 흑인 관련 이슈에 대한 유권자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주의적 가치에 바탕하고 있는 이 스테레오타입은 모든 이슈에서 중요한 결정 변수로 나타났지만, 특히 흑인을 돕거나 공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상징적 인종주의적 성격을 그다지 지니고 있지 않은 ‘흑인은 지적 능력이 낮다’는 스테레오타입은 흑인 관련 이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징적 인종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변수인 흑인에 대한 온도 지수 역시 대부분의 흑인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흑인들의 노력이 백인과 같은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제외한 여섯 개 이슈에서 모두 흑인에 대한 온도 지수가 높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흑인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차별보상정책과 흑인의 공정한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이 집단 변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이념은 이념적 위치 그 자체, 이념적 애착정도, 또는 이 두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흑인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범위는 흑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역할, 흑인 대통령에 대한 불편감 정도, 과거 역사의 영향에 대한 인식, 흑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한정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흑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정치적 이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유권자들의 이념적 위치는 흑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흑인 대통령에 대한 불편감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력이 기대보다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흑인 관련 유권자 태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정당선호도는 2008년 미국 유권자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를 형

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흑인 대통령에 대한 불편감 정도를 제외한 모든 이슈에 대해 정당선호도는 유권자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인종평등 관련 이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 흑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흑인에게 공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정당선호도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적 균열을 보이는 미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인들의 흑인에 대한 인식과 인종평등정책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요인을 넘어 상당 부분 정치적 변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시점에서 인종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유권자 연계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정치적 지식 또한 인종 이슈 관련 유권자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정치적 지식 정도가 높은 유권자들이 항상 흑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치적 지식이 많은 유권자들은 흑인 대통령에 대한 불편감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흑인이 스스로 편견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흑인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백인들처럼 잘 살 수 있는 현실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식은 동시에, 흑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반대, 차별보상정책에 대한 반대, 그리고 흑인들이 적절한 대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치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흑인이 정부나 기타 사회적 도움 없이 스스로 상황을 타개하기 힘든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흑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에는 반대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 2에서 나타났던 교육 변수 영향력의 복합성은 회귀분석에서는 사라졌다. 교육을 많이 받은 유권자는 교육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여섯 개 항목에서 모두 흑인들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우호적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교육의 효과는 표 2에서 보였던 교육 변수의 다방향적 경향이 교육수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식이나 수입 등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통제 변수들 중에는 특히 수입정도가 흑인에 대한 인식과 인종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이 높은 사람들은 흑인 대통령에 대한 불편감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체적으로는 흑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과거 역사가 현재의 흑인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흑인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수입이 높을수록 흑인에 대한 차별보상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밖에 연령이 높을수록 흑인 대통령에 대한 불편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이 흑인 스스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남성이 여성보다 공정한 흑인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컸으며, 흑인 스스로 편견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약컨대, 흑인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인식과 흑인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주목한 상징적 인종주의나 집단인식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은 미국인들의 인종 관련 태도를 결정짓는 핵심적 변수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의 결과는 인종 관련 이슈가 보다 보편적인 정치적 이슈로 포장되어 다루어지고 있다는 스나이더만 등(1996)의 주장 또한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스나이더만 등이 주장한 이념적 성향보다는 정당선호도를 통해 인종관련 이슈와 정치적 요인 간의 관련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에 주목할 만하다. 1960~1970년대 민권운동이 끝난 이래 약화되어 왔던 민주당-흑인 유권자 연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흑인인 오바마의 등장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은 흑인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와 인종평등정책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정치적 지식의 효과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입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이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정도가 높은 사람들과는 달리, 정치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흑인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인종평등정책에 대한 태도가 모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5. 결론

이 연구는 인종 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에서 유권자들이 흑인에 대한 인식과 인종평등정책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어떠한 요인을 통하여 형성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제도적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졌음에도 미국은 소위 ‘피 한 방울 원칙’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내듯이 먼 조상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흑인이 있으면 현재의 피부색에 관계없이 흑인으로 간주할 정도로 흑백 인종의 구분을 철저히 하는 사회이다. 과거와 같은 명시적인 인종차별과 흑인에 대한 비합리적 편견은 많이 사라졌지만,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정교해진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정당화되고 합리화된다. 특히, 과거의 흑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인정하고 흑인들을 엮매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들로부터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제안되는 다양한 정책들은 정부의 크기 논쟁 및 정부의 역할 논쟁을 통해 일반화되어 보수적 미국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빈번하다.

본 연구의 결과, 미국 유권자들의 흑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종평등정책에 대한 반대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의 개인주의적·자립적 가치에 기반한 흑인들에 대한 편견, 흑인들

에 대한 집단적 구분, 정치적 이념, 정당선호, 정치적 지식 정도 및 교육수준, 그리고 수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까지 미국 유권자들의 인종 관련 태도는 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기존 연구들이 초점을 맞추어온 심리적 요인들과 이념이나 교육 등의 정치·사회적 요인들에 더하여, 정당선호가 미국인들의 인종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 정당을 얼마나 선호하는가에 따라 흑인에 대한 태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종 이슈에 대한 태도가 정당지지 행태를 통해 발현됨으로써 특정 인종 이슈들이 보편적인 차원의 정치적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으로 차별이 철폐된 후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 영역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흑인 문제가 흑인만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미국사회의 정치적 균열을 형성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범주로 인식됨으로써 미국의 정치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핵심 이슈로 살아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특히 정부의 역할, 복지 이슈 등과 연계되면서 흑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과거보다 더욱 광범위한 수준에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렇게 흑인의 문제를 정치적 이거나 사회구조적 문제 속에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의 역사 속에 그 근원이 있는 흑인 문제만의 특성에 대해 무관심한 채 본질을 벗어난 해결책으로 난항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상징적 인종주의나 집단 간 갈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은 정치과정을 통해서, 또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되기는 어려운 요소들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의 흑인 문제는 보편적 수준의 정치적 갈등 해소 노력과 더불어, 흑인 문제가 가지는 고유 특성들에 대한 이해와 해결 노력의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권자들의 흑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정적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교

육수준의 향상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지식이 오히려 흑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강화시키는 경우에도 교육은 그 자체로서 흑인들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인종평등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흑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더불어,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효과는 인종 문제와 관련한 교육 콘텐츠의 질이 높아질 때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정치적 지식의 복합적 효과에도 주목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치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 문제가 흑인들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종평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지식은 건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행태와 여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치적 정보를 가지고 그것에 바탕하여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인종 이슈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는 매우 모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하나의 가설은 미디어의 영향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미디어는 흑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흑인에 대한 편견을 내포하는 코드 언어와 상징들을 통해 친(親)흑인 정책에 대해 편견에 기반한 판단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Bobo, 1997). 이 때문에 미디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는 정치적 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이 오히려 더 흑인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에서의 흑인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교육기회의 확대 및 교육의 질 향상, 그리고 미디어의 책임 있는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는 다차원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한국 사회에도 유용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 이슈가 다문화라는 주제에 특정화된 이슈가 아니라 보편적 정치담론과 연결될 때 정치적 관심의 대상

이 될 수 있고 결국 주요 정치과정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이슈는 다문화 자체가 가지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뒤로 한 채 한국의 정치적 균열 구조 안에서 일반적인 정치 이슈의 한 부분으로서 간주되는 단점을 지니게 된다. 한편, 미국의 인종문제 사례는 흑인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편견이나 근거 없는 집단주의가 공동체의 융합에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사회의 타인종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 내지 무관심 또한 이러한 심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과 미디어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2012.10.22 접수, 2012.12.03 수정, 2012.12.27 게재확정

참고문헌

- Alvarez, Michael. R. and John Brehm, 1997, Are Americans Ambivalent towards Racial Poli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2), 345-74.
- Brader, Ted, Nicolas A. Valentino, and Elizabeth Suhay, 2008, What Triggers Public Opposition to Immigration? Anxiety, Group Cues, and Immigration Threa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2(4), 959-978.
- Bobo, Lawrence, 1997, Race, Public Opinion, and the Social Sphere. *Public Opinion Quarterly*, 61(1), 1-15.
- Bobo, Lawrence, 1999, Prejudice as Group Position: Micro-Foundations of sociological Approach to Racism and Race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5(3), 445-72.
- Bobo, Lawrence, 2000, Race and Beliefs about Affirmative Action: Assessing the Effects of Interest, Groups Threat, Ideology and Racism, In D. O. Sears, J. Sidanius, L. Bobo (eds.). *Racialized Politics: The Debate about Racism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bo, Lawrence and J. R. Kluegel, 1993, Opposition to Race Targeting: Self Interest, Stratification Ideology, of Racial 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951-72.
-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Basic Books.
- Delli Carpini, Michael X. and Scott Keeter,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ackman, M. R., 1994, *The Velvet Glove: Paternalism and Conflict in Gender, Class, and Ra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ckman, M. R. and M. J. Muha, 1984, Education and Intergroup Attitudes: Moral Enlightenment, Superficial Democratic Commitment, of Ideological Refin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751-69.
- Kinder, Donald R., 1986, The Continuing American Dilemma: White Resistance to Racial Change 40 Years After Myrdal, *Journal of Social Issues*, 42, 151-71.
- Kinder, Donald R. and L. Sanders, 1996, *Divided by Color: Racial Politics and Democratic Idea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luegel, J. R. and E. R. Smith, 1983, Affirmative Action Attitudes: Effects of Self-interest, Racial Affect, and Stratification Beliefs on Whites' Views, *Social Forces*, 61(3), 797-824.
- Mittens, R. W. and T. F. Pettigrew, 1997, Is Subtle Prejudice really Prejudice? *Public Opinion Quarterly*, 61(1), 54-71.
- Nelson, Thomas E., and Donald R. Kinder, 1996, Issue Frames and Group-Centrism in American Public Opinion, *Journal of Politics*, 58, 1055-78.
- Pettigrew, T. F. and R. W. Mittens, 1995, Subtle and Blatant Prejudice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57-75.
- Sears, D. O., 1988, Symbolic Racism, In P. A. Katz, D. A. Taylor (eds.), *Eliminating Racism: Profiles in Controversy*. New York: Plenum
- Sears, D. O., P. J. Henry, R. Kosterman, 2000, Egalitarian Values and Contemporary Racial Politics, In D. O. Sears, J. Sidanius, L. Bobo (eds.), *Racialized Politics: The Debate about Racism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ears, D. O. and D. R. Kinder, 1985, Whites' Opposition to Busing: On Conceptualizing and Operationalizing Group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148-61.
- Sidanius, J. E. Devereus, F. Pratto, 1992, A Comparison of Symbolic Racism Theory and Social Dominance Theory as Explanations for Racial Policy Attitud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3), 377-95.
- Sidanius, J. P. Singh, J. J. Hetts and C. Federuco, 2000, It's Not Affirmative Action, It's the Blacks: The continuing Relevance of Race in American Politics, In D. O. Sears, J. Sidanius, L. Bobo (eds.), *Racialized Politics: The Debate about Racism in America*. Chicago: Univer-

- sity of Chicago Press.
- Smith, F. R., 1993, Social Identity and Social Emotions: Toward New Conceptualizations of Prejudice, In D. M. Mackie, D. L. Hamilton (eds.),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Interactive Processes in Group Perception*. New York: Academic.
- Sniderman, Paul M., Richard A. Brody, and Philip E. Tetlock, 1990, *Reasoning and Choice: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niderman, Paul M., Edward G. Carmines, Geoffrey C. Layman, and Michael Carter, 1996, Beyond Race: Social Justice as a Race Neutral Ide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1), 33-55.
- Sniderman, Paul M., and T. Piazza, 1993, *The Scar of Ra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niderman, Paul M., and Philip E. Tetlock, 1986, Symbolic Racism: Problems of Motive Attribution in Politic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Issues*, 42, 129-50.
- Taylor, M. C., 1998, How White Attitudes Vary with the Racial Composition of Local Populations: Numbers Cou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512-35.
- Tuch, S. A. and M. Hughes, 1996, Whites' Racial Policy Attitudes. *Social Science Quarterly*, 77(4), 723-45.

Determinants of the Americans' Attitudes towards Racial Issues

So-Young Lee*

Abstract_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electorate's attitudes towards racial issues in the U. . Employing the 2008 National Election Studies data, it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various factors on which the existing studies do not reach an agreement.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such factors as symbolic racism, group conflict, political ideology and values, and socioeconomic elements were influential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s racial issues still in 2008. In addition, from the result that party identification is another very important determinant implies that racial issues have become the more universal issues reflecting political cleavages of the U.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noteworthy that politically knowledgeable voters show mixed attitudes towards racial issues, while more educated are consistently favorable to blacks.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racial issues in the U.S. are the multidimensional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not only through the political efforts and social structural change but through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tents and the responsible role of the media.

Keywords_U.S. racial issues, symbolic racism, group conflict, black stereotype

* Daegu University, Professor, Comparative Politics, soyoung.sylee@gmail.com